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아 기 천 사

옛날 하늘나라에 곧 지상으로 내려가게 될 아기가 있었어요.
그 아기는 하나님께 물었죠.

"하나님께서 절 내일 지상으로 보내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이렇게 작고 무능력한 아기로 태어나서 저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?"

"그래서 너를 위한 천사를 한 명 준비해 두었지. 그 천사가 널 돌봐줄 거란다."

"하지만 여기서 전 노래하고 웃으며 행복하게 지냈는걸요."

"지상에서는 네 천사가 널 위해 노래하고 미소지어 줄 테니까 넌 천사의 사랑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게 될 거란다."

"하지만 전 사람들의 말을 모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죠?"

"네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말로 너한테 얘기해 줄 거란다."

그리고 인내심과 사랑으로 네게 말하는 걸 가르쳐 줄거야."

"그렇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땐 어떡해요?"

"그럼 네 천사가 네 손을 잡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알려 줄 걸."

"지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다던데 그 사람들로부터 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란 말인가요?"

"네 천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널 보호해 줄 꺼야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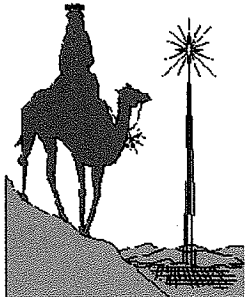
"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너무 슬플텐데요..."

"네 천사가 나에 대해 얘기해 주고,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거란다. 난 늘 네 곁에 있을 거지만 말야."

그 순간 하늘이 평온해지면서 벌써 지상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.

"하나님, 제가 지금 떠나야 한다면 제 천사 이름이라도 좀 알려 주시겠어요?"

"네 천사를 널 '엄마'라고 부르게 될 거란다..."

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 인	'2003년 교회생활' "건강한 가정, 건강한 교회"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 섬김과 봉사 *익명성 - 명예
성탄절	기초성경공부이수, 정장으로 예배, 남 이야기 금지	2003년 12월 25일
☎ 520-9464, 369-5077, 71 Khyber Pass Rd. 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 calvary.ca.to		



성탄구유

-고 훈-

얼마나 더 내려가면
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
아름다워서 추하고
거룩해서 속된 우리는
오늘도 그날처럼
등 돌아선 길을 걷고 있습니다.

눈을 나리고
찬바람 속에 그때보다 더 얼어붙은 당신의 땅
너무 천하게 태어나서
눈여겨 보는 이 없고
너무 약하여
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.

실로
문턱 없는 낮은 곳에서
두려움 없는 아이 모습으로
가장 가까운 얼굴로
우리 곁에 오신 당신인 것을

많이 소유했기에 더 가난하고
많이 알기에 더 무지해진 우리는
오늘도
등 돌아선 길을 걷고 있습니다.
얼마나 더 내려가면
당신을 알 수 있습니까?



성탄 예배

표에 행사하시기 어려움 복음 안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.

간 수 123장
성시교독 57 (성탄절)
신앙고백 사도신경

미가 5:2-4
103장

눅 2:8-14
121장

마 2:1-11
122장

성가대 찬양

사울기도 간 수

세례식

<인교> 간 민 <유아세례> 간은혜 <세례> 도세경, 이종란, 최영영

성찬식

복음서
복음서

누가복음 2:8-14

성경말씀
간 수
간 수
간 수
간 수

신경화 전사
다란이

115장

간 수
간 수

하루에 한 영혼을 위한 평일 예배

추억속의 성탄절

추천예배: 낮 12시 수요예배: 저녁 7:30 아동, 학생부: 추수 날 12시 청년부: 토 저녁 7시

'2003년 교회표어
"경이한 가정, 경이한교회" (마 18:4)
부모의 기도하는 자녀
님의 원복 해아리는 신앙

*3주간 예배, 전교회가 이후에
특별 자석이 주어집니다
*여러교회를 다녀 모신후 중점
하셔야 바를 편만입니다

간 수

나 어릴 제 성탄절은

너무나 추웠다
교회 갔다 오는 길
내복도 양복도 없이 발발 땀머

땀간 권양 귀
몸은 안 두 추를 물어가며
최복이 하 면서 마냈다

나 어릴 제 성탄절은
선물도 없었다

가난한 시골교회는
아린 우리들에게 줄 것이 없었다
뜻 있는 절상은 어를들만 먹고

산타클로스 학아버지는
가난한 우리 동네까지 오지도 않았다

나 어릴 제 성탄절은
그래도 즐거웠다

편 예배 시간에 하는 연극이랑
공 마음 사람들이 함께 보았다
짜증대장 산타클로스 빼졌어도

그 밤에는 모두 한마음이었다
그 밤에는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었다

아이!

그때는 난씨가 그렇게 추웠어도
우리의 마음들은 훈훈한 사랑이 있었다

그때는 선물 하나 주고받는 이 없었어요
우리의 가슴에는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었다

아쉽곤 우리의 몸짓 속에는
주님께로 향한 간수한 마음이 있었다

주님은 불해드 화려한 도회의 흥들 연회장도
자랑할 오를 간 수리 불리는 성전도

간 수
간 수

간 수